

## Clinical Implant Prosthodontics - Partially edentulous case

한동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 연자 약력

1978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81 연세대학교 치대병원 보철과 전공의 수료  
 1987 치의학 박사  
 1989 미국 아이오와 치과대학 방문교수  
 1996 미국 로마린다 치과대학 방문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수

골유착성 임프란트는 초기에는 주로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되었으며 구강내 기능회복의 우수성과 높은 성공률로 인해 점차 부분무치악 환자에까지 적용하게 되었고, 이 경우도 무치악의 경우와 유사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분무치악의 경우는 임상 적용 방법이 무치악의 경우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이하다. 물론 고정성 보철물 또는 국소의치 제작시처럼 인접치아를 삭제하지 않아도 되고, 지대치에 가해지는 무리한 하중도 피할 수 있어 구강내 잔존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치부위에서도 심미적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고 구치부위에서는 전치부위에 비해 악골의 양과 질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교합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상악전치부위에서는 인접치아의 형태와 색조를 재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접치은의 형태, 색조 까지도 재형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구치부위에서는 제한된 골조직의 조건하에서 적절한 저작 기능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는 모든 환자의 결손치아의 수, 악간 관계, 해부학적 구조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임프란트 식립위치, 수, 교합 형성에 이르기까지 생체역학적인 고려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부분 무치악 환자의 경우 성공적인 치료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치악 환자의 경우보다 철저한 구강 검사와 치밀한 치료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보다 정교한 외과적 시술과 보철수복을 필요로 한다.

본 연재에서는 회복될 부위별로 진료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각 부위별 임상증례를 통하여 부분무치악에서 성공적인 임프란트 보철 시술 방법에 접근하고자 한다.